



보도 일시	2023. 12. 6.(수) 06:00	배포일	2023. 12. 5.(화)
담당 부서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담당자	김인숙 팀장(043-880-5421) 박경아 대리(043-880-5423)
담당 부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국	담당자	정구찬 국장(02-2024-9181) 서원영 사원(02-2024-9130)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

-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 시 다발, 대부분 자연배출 되나 기도 흡인 주의해야 -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며 치과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최근 4년간 임플란트(인공 치아 이식) 상담을 위해 치과를 방문한 환자 수
 : ('19년) 560,378명 → ('20년) 553,595명 → ('21년) 594,585명 → ('22년) 628,526명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

최근 4년 6개월간('19년 ~ '23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이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연도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6월)	합계
건수	19	25	17	35	16	112
증감률	-	31.6	△32.0	105.9	-	-

관련 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2022년에는 전년('21년) 대비 105.9%(17건→35건) 증가했다.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하다.

□ 작은 재료를 사용하는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 시 특히 주의해야

위해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되어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¹⁾.

□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마련 필요, 환자도 적극 협조해야

치협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라고 밝혔다.

* 러버댐(rubber dam) : ‘고무로 된 댐’이라는 뜻으로, 얇은 고무판에 구멍을 뚫어 시술할 부위의 치아만을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고무판 아래 위치시켜 격리하는 방법

또한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鼻呼吸, 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붙임> 1.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위해정보 분석 결과
2.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1) 전한솔, 이진한. 2018. "치과 치료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의 삼킴과 흡인의 예방과 대처", Journal of Dental Rehabilitation and Applied Science, v.34(2):63-65

□ (연도별) '22년 위해사례 전년('21년) 대비 105.9% 증가

- 최근 4년 6개월간('19년~'23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관련 위해사례는 총 112건임.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22년에는 전년('21년) 대비 105.9%(17건→35건) 증가하였는데,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6월)	합계
건수	19	25	17	35	16	112
증감률	-	31.6	△32.0	105.9	-	-

□ (연령대별) 10건 중 7건,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9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70대' 27건(24.1%), '80세 이상' 19건(17.0%), '50대' 16건(14.3%), '50세 미만' 20건(17.8%) 등의 순으로 나타나 60~90대 고령자가 대부분(67.9%)임을 알 수 있음.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만 14세 이하	8	7.1
만 15세 ~ 49세	12	10.7
50대	16	14.3
60대	29	25.9
70대	27	24.1
80대	19	17.0
90대 이상	1	0.9
합계	112	100.0

□ (위해경위별)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에서 70% 이상 발생

- 위해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음.

[위해경위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보철치료	82	73.2
기타치료*	30	26.8
합계	112	100.0

* 충치치료, 사랑니 발치, 치아 교정, 그 외 구체적인 진료 행위 미확인 건

□ (위해부위별) 대부분 소화계통으로 넘어가나 일부 기도 흡인 발생해

- 전체 안전사고의 위해부위를 분석한 결과, ‘소화계통(식도, 위장, 대장 등)’ 이 94건(8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호흡계통(기도, 폐 등)’ 14건(12.5%), ‘목’ 4건(3.6%) 순으로 나타남.

[위해부위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소화계통(식도, 위장, 대장 등)	94	83.9
호흡계통(기도, 폐 등)	14	12.5
목	4	3.6
합계	112	100.0

□ (주요 위해사례)

1	(2019.1., 73세 남) 치과 임플란트 시술 중 나사가 기도로 넘어가며 이물 제거를 위해 병원 치료를 받음.
2	(2020.5., 32세 남) 치과 진료실에서 사랑니 발치하던 중 침을 석션하는 석션팁을 삼켜 병원 진료를 받음.
3	(2021.6., 77세 여) 치과 진료 중 5mm 크기의 치아보철물을 삼켜 이물감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4	(2022.1., 66세 남) 치과 진료 중 임플란트 구조물이 목으로 넘어가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음.

[의료진 안전수칙]

1.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 등 반사 신경이 둔해져 기도 흡인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2. 러버댐이나 거즈를 방어막으로 활용하거나 치료기구를 치실로 엮는 등 이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3. 치과위생사 등 모든 의료진 보조자가 이물질이 떨어졌을 시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4. 진료 기구가 구강 내로 떨어진 경우 급히 제거하지 말고 환자의 얼굴을 살짝 좌나 우로 돌려 삼키지 않게 하고, 자발적인 반응으로 뱉어내게 유도합니다.

[소비자 안전수칙]

1. 평소 치과에 대한 불안감이 높거나 비^비호흡(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과 상담합니다.
2.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불편함을 느낄 시 바로 손을 들어 알리는 등 의료진과 미리 약속된 행동으로 소통합니다.

(자문 : 대한치과의사협회)